
개항 이후(1876~1910) 일본 어업의 제주도 진출*

박 찬식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cheju4843@hanmail.net

I. 머리말

1876년 개항 이후 한반도 연해안의 어업은 일대 위기를 맞이하였다. 일본 어민들은 조선 정부와 일본이 체결한 어로협정에 따라 조선의 연해에서 어로 활동을 보장받게 되었으며, 울릉도와 제주도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연해는 그들의 어장 침탈 대상이 되어갔다. 이로 인해 조선의 전체 어장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가장 심한 피해를 받았고 극심한 어로 분쟁이 발생한 지역은 제주도였다. 제주 어장에 진출한 일본 어민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었으나, 제주 어민들의 피해는 극심하였다. 일본 어민들은 제주 어민들의 생계를 침탈하고, 심지어 연해안 마을에 어막을 지어서 집단적으로 행동하고 인명을 살상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제주 어장을 둘러싼 어업 침탈과 상호 분쟁, 제주도민의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3-074-AM0010)

대응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¹⁾ 최근에는 대표적인 어업권 분규 사건인 이만송 살해 사건을 중심으로 법사학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 결과도 제출된 바 있다.²⁾ 기왕의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생각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아직도 많다고 본다. 우선 개항 이후 일본의 제주도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에 주목하여 어장 침투 상황을 검토해야 할 듯하다. 그리고 어장을 둘러싼 분쟁의 실상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드러나야 할 것이다. 또한 어장 침탈과 병행하여 진행된 일본 어민의 제주도 거주 등 본격적인 진출 상황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는 지금까지 인용되었던 자료 외에 새로이 찾은 다양한 정부 측 공문서를 중심으로 개항 이후 일본 어업의 제주 어장 침탈 상황, 제주도민의 대응 등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 활용되지 않았던 당시 제주도를 다녀간 일본인이 직접 작성한 자료, 당시 실상을 상세하게 보도한 일본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일본의 제주도 인식과 제주 어장에 진출한 일본 어민들의 실상, 일본 어민의 제주도 거주, 제주 어민과의 분쟁 내용 등에 대해서도 정리하여 볼까 한다.

II. 일본의 제주도에 대한 인식

1885년 발생한 영국군의 ‘거문도 점령사건’은 영국과 러시아가 거문도를 둘러싸고 군사기지 확보를 위한 쟁탈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개항시기 일본의 신문에 게재된 제주도 관련 기사를 보

-
- 1)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다음 논문들을 들 수 있다. 李元淳 「韓末 濟州道 通漁問題 一攷」 『歷史教育』 10 (1967) ; 韓祐勳 「開港後 日本漁民의 浸透 (1860~1894)」 『東洋學』 1 (1971) ; 姜萬生, 「韓末 日本의 濟州 어업 침탈과 島民의 대응」 『濟州島研究』 3 (1986).
 - 2) 이영록, 「제주도민 살해사건과 일본영사재판 -이만송(李晩松) 살해사건을 중심으로」 『법과 사회』 26 (2004).

면,³⁾ 러시아의 제주도 군사기지 확보를 위한 노력에 일본이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즉 1885년 4월에 러시아 동양함대가 제주도 점령을 시도한다는 정보가 일본 朝野에 알려지면서 일본 신문에서는 제주도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여 특집 기사를 게재하게 되었다.⁴⁾ 일본은 러시아가 제주도를 차지한다면 남쪽으로 진출하는 요긴한 항구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었다. 그리고 영국과 러시아의 대립으로 제주도·거문도 점령이 더욱 가시화될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이를 방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⁵⁾ 이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제주도 근해 측량을 명분으로 군함 龍驤艦을 제주도로 출동시켰다.⁶⁾ 당시 상황은 겉으로는 1885년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면서

-
- 3) 최근 당시 일본 신문의 제주도 관련 기사를 추출하여 번역·편집한 다음의 책을 참조하기 바란다.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자료집·일본신문이 보도한 제주도(1878년~1910년)』(제주: 2006).
- 4) 『大阪毎日新聞』, 1885년 3월 12일(露國 제주도를 노리다), 4월 9일(제주도), 4월 23일(제주도 차용에 관한 조회); 『鎮西日報』, 1885년 4월 15일(제주도); 『大阪朝日新聞』, 1885년 4월 24일(제주도).
- 5) “英艦 아고메노호 및 다른 두 척이 보루토타미루톤(거문도)에 정박하고 있다는 소문은 최근 더욱 자자하다. 또 露國이 게루바루토(제주도) 점령의 담판을 조선과 한다는 것을 풍설이라고 막연히 듣고 넘길 수 없다. 만약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는 조선으로서는 심히 우려되는 大患이다. 이는 조선뿐만 아니라 역시 日·淸 약국의 우환이 된다. 더욱이 노국이 게루바루토를 노리는 것은 오늘에야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일찍부터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바이다. …… 두 나라(영국과 러시아)의 다툼이 피할 수 없는 기세는 즉 제주·거문 두 섬의 점령을 촉진시킬 것이다. 단지 두 섬의 점령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또 일·淸 두 나라에 파급될 것이다. 지난 시기 영·로가 전쟁을 했을 때 러시아의 군함이 우리 항구에 들러 파손된 것을 수리한 것처럼 금후도 그렇게 시도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國外 중립을 지키려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어려움은 청불전쟁 시에 비할 바가 아니다. 충분한 병력과 수비로써 변경의 바다와 항구를 경비하는 문제는 곧 눈앞에 닥쳐올 것이다.”(『鎮西日報』, 1885년 5월 1일, 사설: 英露의 관계 조선에 파급).
- 6) “우리 군함 龍驤艦이 제주도 근해 측량을 위해 이미 조선 부산포를 떠났었는데, 그 측량을 마치고 지난 24일 다시 동향에 귀착 投錨하였다고 함.”(『大阪毎日新聞』, 1885년 5월 6일, 제주도 근해 측량).

1884년 조선과 수호조약을 체결한 러시아와의 갈등으로 비쳐지고 있지만, 오히려 러시아나 일본이 군사기지로써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은 제주도였다.

이 시기 제주도는 일본에게 한반도 어장 침투의 최고 요충지로도 인식되었다. 일본 어업인들이 조선 근해에 출어하려면 반드시 제주도를 통항의 거점으로 삼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주요 어장이 모두 제주도 근방에 있기 때문이었다.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종은 주로 상어·전복·해삼·도미 등인데, 매년 어획고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수산물은 거의 중국에 수출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제주도가 개방되면 일본 어민의 수익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였다.⁷⁾ 그러나 조선 정부는 제주도민의 반발 때문에 일본 어민들에 대하여 제주도 어장에서의 조업을 금지하였다.⁸⁾ 때문에 1890년대 이후 일본 정부는 조선 정부와 제주도 어장의 개방을 위한 외교적 절충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다.

1892년 조선 정부가 대동강 개항의 대가로 제주도 禁漁 조치를 제시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것이라는 설이 확산되자,九州 지방의 어업인들은 낙담하였다. 당시 長崎縣의 지역 신문은 일본 정부의 제주도 漁權 포기를 강력히 비난하며 제주도가 최상의 어업 지역임을 강조하였다.⁹⁾

일본은 1894년 청일전쟁을 전후하여 조선에 대한 침략을 기정사실

7) 『鎮西日報』, 1890년 1월 17일(조선 근해의 어업).

8) 제주도 어업의 다수는 부녀자들의 전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일본어민이 제주도에 들어와서 어업을 하면 생업을 잃게 되어 불만이 크다는 것이다(『鎮西日報』, 1890년 6월 5일, 다시 제주도의 어업에 대해서).

9) “제주도 해변은 우리 어민의 金庫寶藏이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전복·해삼·상어 등이고, 그 품질은 다 우리나라 해산물보다 뛰어나기에 한번 제주해에 든 자는 百財를 낚고 千財를 그물 친다. 이래서 오늘날 풍파를 만나 물고기의 밥이 됨을 꺼려하지 않는 까닭은 여기가 최상의 어업지이므로九州 연안의 어업자가 대체로 이에 의거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 정부가 제주도를 포기하고 단지 대동강 개항에 고집하면 다리 밑의 자갈을 잡고 수중의 주옥을 잃은 셈이 된다.”(『鎮西日報』, 1892년 9월 28일, 제주도 漁權 포기를 비난한다).

로 여겼다. 이 시기 일본 朝野의 눈은 조선에 집중되었다. 신문 잡지 등에서 조선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었고, 조선의 역사 및 언어 지리 연구가 서서히 진행되었다. 1904년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의 조선 침략은 가속화되었고, 결국 1905년 을사늑약과 1906년 통감부 설치로 귀결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일본은 자신들이 중국과 러시아 등 대륙세력을 물리쳐서 조선을 그들의 굴레에서 독립 해방시켰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 이제 조선은 일본의 본격적인 식민 대상이 되어갔다.

19세기 말 이래 제주 또한 일본의 경제적 침탈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1880년대 이후 어장 침탈을 시작으로 일본인들의 제주 왕래는 빈번해졌고, 그들은 교역과 상업을 주도하여 갔다. 1901년 ‘이재수란’ 때에는 목포 주재 일본영사관에서 제주 거주 일본인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군함 濟遠艦을 이끌고 직원 2명을 파견하여 현지 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기도 하였다.¹⁰⁾ 이제 일본은 제주도를 본격적인 어업 기점 지역으로 여겼고, 나아가 산업 식민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다.

1902년 당시 제주 어장에 진출한 일본 어선은 20척, 승무원은 1,200명에 달할 정도였다. 일본 어선들은 제주도 연안의 여러 포구에 정박하였는데, 1890년대와 달리 제주도 어민과의 분쟁이나 갈등은 거의 없어지게 되었고, 제주도에서의 어업을 일본 어민들이 완전히 독점하게 되었다고 일본 신문은 보도하였다.¹¹⁾

20세기 초 일본 신문에는 제주도가 풍부한 어장이며 해양 항로로서 요충임을 중시하며, 일본인이 제주도에 이주하기에 편리함을 역설하는 글이 여러 번 게재되었다.¹²⁾ “일본 민족 팽창의 새 방면으로서 (제주도가) 식민의 적합지인 이유를 세인에게 소개한다.”¹³⁾ “제

10)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6권(국사편찬위원회, 1996)에 제주도 현지 조사 보고서가 수록되어 있다.

11) 『嶺西日報』, 1903년 2월 26일(제주도에서 우리 사람의 어업).

12) 『大阪毎日新聞』, 1903년 5월 4일(제주도 사정), 5월 12일(제주도 사정); 1904년 1월 11일(제주도에서의 새 일본).

13) 『大阪毎日新聞』, 1904년 1월 11일(제주도에서의 새 일본). 이 글은 목포에 주재하던 靑柳南冥가 썼는데, 그는 곧이어 소개할 朝鮮의寶庫 濟州

주도는 옛날 우리나라 및 支那 무역의 중계지였다. 제주도는 珍木이 풍부하고 목장에 적절하며 우리 어민의 근거지이다. 여기에 우리 국민이 기업을 일으키는 것은 매우 기뻐해야 할 현상이다.”라고 하여,¹⁴⁾ 제주도를 장래 유망한 식민 사업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야기가 연이어 지상에 거론되었다.

20세기 초 제주도에 관한 일본인들의 관심이 급증하여 제주도에 관련된 많은 서적을 남겼다. 이들 서적은 학문적 성격의 것이 아니라 장차 자국민을 이주시키고 상품시장으로 삼고자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 그 대표적인 것이 1906년 통감부에서 파견한 神谷 財務官의 『濟州嶋現況一般』이다. 이는 제주도의 행정 및 재정 산업 실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한 기록으로서, 일본의 제주 침탈에 앞서 사전 지식을 축적하기 위한 지침서 역할을 하였다.

또 하나 일본의 제주에 대한 침략적 시각을 강하게 드러낸 서적은 1905년 靑柳綱太郎가 지은 『濟州島案内』이다.¹⁵⁾ 저자는 1901년 서울에 머물다가 ‘이재수란’이 발발하자 제주에 와서 여러 날을 체류하면서 민정·풍속 등을 조사한 바 있었다. 그 뒤 1905년 봄 체신청의 직원으로 다시 제주에 조사하러 와서 지난번의 모자란 점을 보완하여 이 책을 쓰게 되었다. 그는 自叙에서 “(제주도는) 移住의 앞날이 바람직스럽고 그 발달·성공이 용이함을 우리가 단언해도 거리낌이 없으며 더구나 이를 단행할 시기는 바로 현시점이다. 하늘이 준 일대 寶庫, 이를 개발하면 그 이익은 그야말로 적잖은 것이다. …… 내가 이 책을 공개하게 됨은 본도의 富源을 세인에게 소개하여 동시에 세인이 본도에 건너가 사업을 시도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例言二則’을 통해서도 집필의 동기를 “한반도의 부원을 개척해서 경제적 팽창, 일본 국민의 새로운 地盤을 건설하기 위해서”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여러 사람이 쓴 서문에는 “제주도는 수륙의 생산

島案内』를 집필한 靑柳綱太郎를 말한다.

14) 『鎭西日報』, 1905년 8월 4일(제주도의 개척).

15) 靑柳綱太郎, 『朝鮮の寶庫 濟州島案内』(東京: 隆文館, 1905).

물이 적지 않고, …… 일본 식민지 중 적당한 부원”(本山彦一, 大阪毎日新聞 사장), “제주도 개척 식산의 열쇠는 실로 大和 민족의 손아귀에 있다.”(田中生誌)라고 하여, 당시 일본의 제주 인식을 엿보게 한다

靑柳綱太郎는 제주도에 농산물과 수산물이 풍부하여 해륙의 생산물은 넉넉히 몇 십 만의 사람을 먹여 살리기에 족하다고 하였다. 특히 어업을 강조하여 “바다에는 수백의 어선이 종횡으로 내왕하여 어업의 이익이 큰데, 더욱이 근년에는 일본 어선들이 제주 연안에 많이 출어하고 漁期에는 어선이 폭주하기를 수백 척에 이르고 승무원도 천 명을 밑돌지 않는다. 수확고 역시 수십만 원을 웃돈다.”고 하였다.

靑柳綱太郎는 제주 진출의 근거를 우선 역사에서 찾고 있다. 고대국 탐라가 660년 백제 멸망 이후 일본에 복속하여 齊明帝 때부터 持統帝 때에 이르기까지 조공을 끊이지 않으며 신하의 예를 취했다고 하여, 탐라가 일본에 예속된 듯이 적고 있다. 이는 제주 진출을 과거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여기게끔 하려는 속셈에 다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인의 심성과 인정을 거론하면서 제주사람들이 일본을 좋아한다든지, 일본사람과 비슷하다고까지 하였다.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들의 폭정에 대한 반동으로 원한이 쌓여 일본을 향한 ‘敬慕의 정’이 생겼으며, 언어·용모·골격 등이 일본인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하였다. 더욱이 일본 역사가들이 제주도를 ‘조선에서의 日本島’라고 지칭한 것을 서슴없이 소개하였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유사한 점을 내세워 교묘하게 침략의 근거로 삼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식민지시대에 일본이 내세웠던 ‘內鮮一體’와 ‘日鮮同祖論’을 연상시키게 한다.

이어서 靑柳綱太郎는 각종 산업 현황을 소개하면서 구체적으로 제주도내 침탈 대상을 열거하였다. 그가 주목한 분야는 주로 어업과 임업이었다. 일본인 출어자가 급증함에 따라 제주도내에 이들을 위한 일대 어촌을 건설하여 어업 방면의 이권을 완전히 획득하고자 했다. 울창한 한라산 삼림 채벌권을 획득하기 위해 대규모 자본의 투입 필요성을 제기했고, 목재를 만주지역에 반출하여 러일전쟁 직후 일본의 만주 경영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靑柳綱太郎의 제주에 대한 구상은 결국 식민 대상 지역으로 구체화되었다. 제주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4백 명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제 제주는 ‘일본인의 제2의 고향’이며, ‘제국적 개척을 위한 신 천지’로 여겨졌다. “제주도가 한국의 것일지라도 일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개척한 천지는 일본인의 고향”이라며, 은근히 제주를 한국의 영역에서 분리시키려고 하였다. 나아가 한국은 제주를 경영할 능력이 없으므로, “일본인의 손으로 개척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문화를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역설하였다. 당시 일본의 인구가 4,800만으로 팽창 상태에 있으므로 제주에도 10만 정도의 인구는 이주해야 할 것이라고도 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러일전쟁 후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던 일본 군벌의 입장과 일치된다. 당시 일본 학자들 사이에 팽배해 있던 ‘한국사회의 정체성’ 논리와도 연결된다. 즉, 한국은 자체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을 수행할 능력이 애당초 없기 때문에 일본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여, 제국주의적 침탈과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던 것이다.

Ⅲ. 일본의 제주 어장 침탈과 분쟁

앞 장에서 살펴본 일본인의 제주 인식은 당시 일본이 제주를 단순히 호기심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침탈과 식민의 거점으로 확보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1876년 개항 이후 선진 어업기술을 갖춘 일본 어민들은 국가권력의 비호 아래 제주연해에 진출하여 거침없이 어장을 침탈하였다. 이 때문에 수산자원이 고갈되어 제주도민들은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되었다.

특히 1883년 7월 25일 「조일통상장정」이 체결된 뒤 일본 어민의 제주 어장 침탈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長崎縣 어민들이 제주 어장에 진출하여 막대한 수익을 거둔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일본 潛水器 어선의 제주 침투가 심해졌다. 1884년 4월 22일 통상장정에 의해 통어권을 주장하면서 對馬島 巖原村의 岩崎忠太가 잠수기선단을 이끌고 서귀포

에서 조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제주의 지방관과 도민들이 통어의 부당성을 내세워 거절함으로써 돌아갔다.¹⁶⁾

1884년 5월에는 대마도 사람 古屋利涉가 잠수기선단 3척을 이끌고 서귀포에서 조업하려 하였는데, 역시 도민들의 큰 반발 때문에 제주목사가 일본 어민의 조업을 저지하고 귀향 조치시켰다.¹⁷⁾ 古屋利涉는 대마도의 藩士로서 대마도와 肥前の 어민 100여 명을 모아서 水潛社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자신이 사장이 되어 제주 근해에서 잠수기계로 조업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는 1884년 4월 일본선 3척, 잠수기계 2기, 어민 수십 명을 거느리고 부산 총영사에게 신고하여 허가를 받고 제주도에 들어갔는데, 제주목사의 조업 금지 때문에 두 척의 배를 제주도에 남겨두고 인천 영사를 찾아가서 조업할 수 있도록 호소하였던 것이다. 古屋利涉는 1884년 9월에 다시 8척의 일본선에 8기의 잠수기계를 싣고 어민 수십 명과 같이 제주도로 보냈다. 古屋利涉선단은 또다시 제주목사의 거부로 아무런 성과 없이 대마도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古屋利涉는 그 동안의 손해에 대한 2만 8,000엔의 배상금을 조선 정부에 요구하였다.¹⁸⁾

잠수업은 본래 해녀들의 전업이었으나, 1880년대 말께부터 일본인들에 의해 잠수기선이 본격 도입되면서 그 작업도 기계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잠수기 어업의 창시자로서 가파도를 근거지로 하는 吉村組가 기계선 12척, 운송선 5척으로 조업을 했는데 吉村與三郎는 山口縣 출신으로서 1882년부터 제주도·거문도 어장에서 어업 활동을 하였다. 1880년대 말에는 본격적으로 제주 어장에서 해삼과 전복 등을 채취하여 청국으로 수출하는 등 1889년 한 해에만 22,000엔의 수익을 올렸다.¹⁹⁾ 그는 조선 해산회사의 전라도 總檢인 許濤子의 주선으로 제주목사와 계약을 맺어 제주도 연안에 어막을 지어서 조업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았다.²⁰⁾ 1900년대 초에는 가파도 서귀포·

16) 姜萬生, 「韓末 日本의 濟州어업 침탈과 島民의 대응」 108 ~109 쪽

17) 『承政院日記』, 고종 21년(1884) 7월 18일

18) 『大阪毎日新聞』, 1885년 5월 26일(古屋씨 韓廷에 요구함).

19) 『鎮西日報』, 1890년 1월 17일(조선 근해의 어업).

표선·성산포·행원 등 5개소에 10여 동의 어막을 마련하여 매년 8월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 조업하였다.

이들은 대거 잠수기선을 몰고 와서 제주 바다의 밑바닥까지 훑어서 전복·해삼·해초 등을 모조리 긁어가 버렸다.²¹⁾ 주로 전복과 해삼만을 잡았는데, 전복은 8~12월, 해삼은 1~3월에 채취하였다. 배 1척당 1개월 채취량은 전복이 고기 800근, 껍질 900근, 해삼은 600근이 평균이었다. 잠수기선 외에 熊本縣 天草 지방에서 건너와 오직 전복만을 잡는 ‘하다카모구리’라는 裸潛業者들이 대거 제주연안에 침투하였는데, 이들의 수입은 잠수기업자를 능가했다. 이들은 4~5척의 배에 각각 15~16명씩 편승하고 왔는데, 이들의 수입은 잠수기업자를 능가했다고 한다.

전복은 鹽藏했다가 썩어서 말리는데 제주산은 품질이 좋아 다른 지역의 것에 비해 항상 가격이 높았다. 건복의 경우 타지방산이 100근당 90원 할 때 제주산은 95원의 격차를 보였다. 1904년 당시 큰 것은 1백 개가 60냥, 작은 것은 15~20냥이었고, 1년 생산량은 1,000貼(전복 1백 개가 1첩) 내외였다. 잡은 전복의 대부분은 京仁지방으로 수송되었고, 그 껍질은 모두 제주에 체류하는 일본인에 의해 長崎·大阪 지방에 수송되었다. 전복껍질의 생산량은 3만근(韓斤) 내외였고, 1근의 가격은 30~35냥이었다.²²⁾ 1800년대 말까지는 껍질 크기가 8촌 내지 1척이나 되는 거대한 전복도 많았으나, 10년이 지난 뒤로부터는

20) 『嶺西日報』, 1891년 9월 26일(제주도 어업론).

21) 제주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金允植은 잠수기선의 採鮑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山底浦에 닿았더니, 일본 어민들의 杉板漁船 12척이 닻줄을 내리고 서로 연결하여 정박하고 있었다. 배 배마다 잠수부 옷 2, 3벌씩 걸려있는데, 잠수부 옷은 온몸을 감싸도록 하고 유리로 두 눈을 쓰도록 하였고, 끝없이 깊은 곳에 들어가서는 평행으로 거침없이 걸어 다니며 마음대로 전복을 잡는다. 위로 수십 발의 숨쉬는 管子 있어서 숨을 내쉬게 되니, 전복을 크고 작은 것 할 것 없이 남김없이 캐어낸다. 이 설사사람들은 이 때문에 失業을 하지만, 역시 그 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없으니, 슬픈 탄식만 할 뿐인지라 참으로 딱하기만 하다.”(『續陰晴史』, 光武 3년 6월 30일)

22) 青柳綱太郎, 『朝鮮の寶庫 濟州島案内』 38 쪽.

평균 6촌으로 작아지고 말았다.²³⁾ 이는 무분별한 잠수기선이 깊은 바다 밑바닥을 전부 훑어버렸기 때문이다. 해녀들의 작업에 의해 이들 수산물을 채취해오던 제주 잠수업은 잠수기선의 등장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1899년 당시 제주에 유배와 있던 金允植은 이와 같은 실정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어제 고기잡이 일본 사람 수십 명이 성안에 들어와 흩어져 다니며 관광을 했다. 이 가운데서 세 사람이 文卿(羅寅永, 羅喆)과 필담을 했다. 그 중 한 사람이 나이는 15세이나 글을 잘 하는데, 자기말로 나가사키에 살고 있으며, 배마다 하루에 전복을 잡는 게 30 꿩미(串, 한 꿩미는 20개), 즉 600개라고 한다. 제주의 각 포구에 일본 어선이 무려 3~4백 척이 되므로, 각 배가 날마다 잡아버리는 게 대강 이런 숫자라면 이미 15~16년의 세월이 지났으니 어업에서 얻은 이익의 두터움이 이와 같은데 본지인은 스스로 배 한 척 구하지 못하고 팔짱끼고 주어버리고 있으니 어찌 애석하지 않으랴.²⁴⁾

해녀들의 채취량은 현저하게 줄어들어 생존권의 위협을 받았고, 결국 이들은 타지역으로 出稼하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게 되었다. 제주 해녀들의 출가는 1887년 경남 부산의 牧島(영도)로 간 것이 시초였다.²⁵⁾ 이후 일제강점기로 들어오면 한반도 남부 지역뿐만 아니라 북부 지역, 일본, 大連, 靑島,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넓어져 갔다.

23) “연변 30리 외의 어채권을 일본인에게 허가해 준 이후에는 제주도 潛女の 이득이 점차 줄었다. 뿐만 아니라 전복의 크기도 옛날과 아주 달라 10년 전의 中鰓이 지금은 大鰓 중에서도 상품이요, 小鰓이 중복의 상품이 되고도 남는다. 이 또한 한 사람이 하루에 켈 수 있는 것이 특히 한 두 개에 불과하다.”(濟州牧教人等說冤書, 1905년 7월).

24) 『續陰晴史』, 光武 3년 8월 29일.

25) 양홍식·오태용, 『제주향토기』 (프린트본, 1958). 한편 1915년 당시 제주군 서기였던 江口保孝는 1892년 경상남도 울산과 기장으로 출어한 게 최초라고 하고(『濟州島出稼海女』, 『朝鮮叢報』, 1915년 5월 1일), 榑田一二는 1895년 부산부 목도에 출어한 것이 처음이라고 하였다(『濟州島海女の地誌學的研究』, 『大塚地理學會論文集』 第2輯 下, 1934).

제주도민들은 계속되는 일본 어민의 어장 침투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제주목사와 중앙정부에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조선 정부는 일본 정부와 협상하여 1884년 9월부터 일본 어민의 제주 通漁에 대한 잠정금지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이 조치는 일본 어민의 入漁 및 입주 구역을 본도 이외의 부속도서로 제한시킨 것에 불과하여 제주연안 어채를 완전히 금지시킨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 어민들은 제주도 주요 포구를 무대로 불법 어로활동을 전개하였다. 1884년 일본 어민들은 제주연안에서 전복 6,000근을 포획하였고, 서귀포·가파도·우도·비양도·방두포·건입포 등지에 수십 척의 일본어선이 침투하였다. 이들은 불법어로에 그치지 않고 연안 마을에 상륙하여 주민 살상, 부녀자 겁탈, 재물 약탈, 상품의 밀매행위 등을 자행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1884년 5월 일본 어민 古屋利涉가 잠수기선 3척을 이끌고 서귀포에 와서 조업하려다가 도민들의 조업 거부로 인한 배상금 2만 8,000엔(70만 냥)을 조선 정부에 강요한 바 있는데, 이에 조선 정부는 제주 어민들 편에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古屋利涉의 어선을 6개월간 제주연해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1887년 3월 古屋利涉가 선단을 이끌고 다시 제주연해에 도착하자 도민들은 병기를 들고 결사적으로 반대하였다. 도민 대표 15명이 상경하여 향후 일본 어민의 제주침투 재발을 엄중히 금지해 주도록 촉구하였다.²⁶⁾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해 일본 어민의 불법 어로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 결국 제주도 어업권 협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 어민들과 제주도민 사이에 긴장 상태가 조성되었고 제주도민 살상 사건이 일어났다. 즉, 1887년 8월 가파도에서 전복을 캐던 일본어선 6척(古屋利涉 선단)이 모슬포에 내려서 닭과 돼지를 약탈하고, 주민 李晩松 등을 살상하였던 것이다. 제주목사 沈遠澤이 정부에 보고한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²⁷⁾

26) 『大阪朝日新聞』, 1887년 6월 11일(경성 통신) ; 姜萬生, 「韓末 日本의 濟州어업 침탈과 島民의 대응」 123쪽.

가과도에서 전복을 채취하던 일본 어선 6척이 연일 모슬포에 와 정박하면서, 육지에 상륙하여 아무 집이나 무단으로 들어가 가축들을 탈취하였다. 이만송은 본래 농민으로 마침 밭에 나가 있었는데, 일본인들이 자기 집에 들어가 닭들을 가져간다는 소리를 듣고 즉시 귀가하여 행패를 나무랐다. 그러자 일본인들은 분노하여 다음날 일제히 하선하여 일본도로 갑자기 이만송의 머리 뒷부분을 내리쳐 즉사케 하였다. 이를 본 포구의 주민 金成萬·鄭宗武·李興福 등이 놀라 달려가 말리자, 이들 또한 곧봉으로 내리쳐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고 급히 배를 타고 떠났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서 40여 명이 포구의 譏察將 文才旭을 둘러싸고 위협하여 강제로 화해의 證標에 手決할 것을 요구하였다. 문재욱이 이를 거절하자, 칼을 빼들고 직접 초안을 작성하여 주며 그대로 쓰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부득이 화해증을 작성하여 건네주자 곧바로 배를 타고 가과도로 돌아갔다. 인명 살상 외에 대정현 전체에서 총 닭 162마리, 개 3마리, 돼지 1마리가 약탈당했다. 당시 일본 어민의 침탈은 대정현 연안의 무릉리·영락리·일과리·모슬리와 가과도 등 여러 마을에 걸쳐 행해졌는데, 마을별로 침탈당한 가축 수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²⁸⁾

마을명	戶主 별 피해 내역
무릉리	강여량 닭 9마리, 김종일 닭 6마리, 김종지 닭 2마리, 김종학 닭 1마리, 송해언 닭 1마리, 조신학 닭 1마리, 양응수 닭 2마리
영락리	고명윤 닭 2마리, 이형련 닭 4마리

27) 「統理衙門呈濟州牧報狀」, 丁亥 8월 24일, 『日本外交文書』 제20권 ; 「濟州民命案」, 丁亥 8월 일 濟州牧使來牒 ; 『承政院日記』 高宗 24년(1887) 8월 17일. 이 사건의 법적 외교적 처리에 대해서는 이영록의 「제주도민 살해사건과 일본영사재판 -이만송(李晩松) 살해사건을 중심으로」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28) 「濟州民命案」, 丁亥 8월 일 濟州牧使來牒

일파리	문기효 닭 17마리, 김운학 개 2마리, 정도홍 닭 1마리, 김치성 닭 15마리, 이운기 닭 7마리, 신영관 닭 4마리, 정시효 닭 5마리, 개 1마리, 고상용 닭 7마리
모슬리	이만송 닭 3마리, 이화석 닭 3마리, 이춘인 닭 2마리, 이의석 닭 2마리, 문태삼 닭 3마리
가파도	이계성 닭 2마리, 고한득 돼지 1마리, 이응홍 닭 7마리, 문원호 닭 6마리, 이명련 닭 2마리, 이홍걸 닭 5마리, 고정민 닭 7마리, 이응언 닭 3마리, 이빈식 닭 5마리, 김만준 닭 7마리, 김명주 닭 6마리, 김은길 닭 3마리, 고봉학 닭 7마리, 김성열 닭 5마리
합 계	닭 162마리, 개 3마리, 돼지 1마리

이만송 살해사건이 일어난 지 1년 6개월이 지나 일본 측은 다시 제주도 어업정지 해제를 촉구하여, 1889년 11월 22일 「조일통어규칙」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통어규칙은 실제로 조선의 어장을 일본에게 양여한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일본 어민들은 소정의 漁稅만 납부하면 연안 3해리 이내의 영해까지 조업이 가능하였고, 일본 측이 자국의 어민에 대한 영사재판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조선 정부는 더 이상 일본 어민을 取締할 수 없었다. 예외적으로 일본 어민의 제주통어 금지를 1년만 연장한다고 했지만 유명무실이었다.²⁹⁾ 이와 같이 제주도 어업권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상호 논박 속에서 제주도 통어 금지 해제 문제가 채 해결되기도 전에 일본 어민에 의한 梁宗信 살해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1890년 5월 17일(양력 7월 3일)에 일본 어민 荒木坂四郎·浦松次郎 등이 盍舍里에 상륙하여 주민 양종신을 살해하였다.³⁰⁾ 제주목사 趙均夏의 장계문을 보면, “일본 선박이 배령리에 와서 정박하였다가 갑자기 육지로 내려와서는 마을에 난입하여 몰래 틈을 엿보아 가며 간악한 짓을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창황히 막아내고 있었는데 그때

29) 姜萬生, 「韓末 日本의 濟州어업 침탈과 島民의 대응」 110쪽.

30) 『日本外交文書』 제20권, 281~282쪽, 1890년 8월 8일. 이들 일본 어민은 長崎縣 출신으로서 飛揚島 앞 바다를 중심으로 어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일본 사람이 성이 나 環刀를 빼어 해당 浦의 有司 양종신을 찔러 죽이고는 즉시 달아났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다음 날 제주판관 康仁鎬와 右面 孟舍里 譏察將 梁時用이 양종신의 시신을 檢屍하였는데, 양 어깨가 모두 상했고, 위와 창자가 전부 파열되었으며 五臟이 밖으로 나와서 흩어져 있었다.³¹⁾

이만송·양종신 피살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자, 제주도민들은 조선 정부에 일본 어민의 침투를 영원히 금지시켜 주도록 강력히 요청하였다. 당시 제주 어민들은 等狀을 관아에 올려서 조속한 해결을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엎드려 생각건대 일본 어민은 (제주)도민의 원수입니다. 본도 토착민들은 가난하여 겨우 미역·전복을 채집하여 생활을 꾸려가고 있으니, 이는 모두 여자의 일입니다. 그런데 甲申年(1884) 이래 일본인 후루야 등이 전복을 캐러 잠수복과 기계 등 많은 선척을 끌고 포구에 들어와 부녀자들이 잡는 고기와 전복을 주머니 속 물건 같이 잡아가니 매월 바쳐야 할 할당액을 어찌 상납할 것이며, 장차 어찌 생명을 보전하겠습니까.

이러한 사정을 제주 목사에게 호소하고, 다시 목사가 정부에 자세히 보고하였다 하니 얼마나 다행으로 생각하였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 앞으로 6개월까지만 어채를 허용하고, 그 후로는 영영 허락하지 않도록 일본 영사관과 약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흉악한 일본인들은 해마다 몰래 어채를 계속해와 전복 중자가 남아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닭과 돼지도 강탈해가는 폐가 많아 이를 금지하려 하면 갑자기 칼을 빼 들고 살인까지 저지르는데, …… 어찌 이리도 악착스러운 자들이 있단 말입니까. 만일 이를 용서하면 도민 모두 보전하기 어려울 것이기에 천리 길을 건너고 수만 번 죽더라도 聖上께서 백성을 보살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범인들을 압송하여 만인들이 모인 곳에서 본도 목사가 처형하여 본도 백성들의 무궁한 아픔을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제주도민들은 이미 일본인과 원수가 되었은즉, 그들이 설치한 어막 역시 철거하게 하

31) 『承政院日記』, 高宗 27년(1890) 6월 20일 ; 『日案』, 1890년 8월 4일 濟州 梁宗信 慘殺犯 荒木 等の 拿辦과 濟州通漁의 罷議 要求. 당시 일본 신문에도 이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하였다(『大阪朝日新聞』, 1890년 8월 20일, 제주도에서 우리 어민이 한인을 斬殺 ; 『新戶又新日報』, 1890년 8월 20일, 21일, 제주도 살상 사건 詳報).

여 다시는 넘보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만일 지금 이 폐단을 엄히 금지하지 못하면 수십만 생령들이 장차 집을 잃고 바다를 건너 흩어질 지경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굽어 살펴주옵소서.³²⁾

그러나 정부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였다. 오히려 일부 관료들은 일본 어민에게 뇌물을 받고 그들의 침투를 방조하였다. 제주도민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제주어업 침탈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1891년 5월 이후로 아예 제주통어 暫禁 조치가 해제되어 일본 어민들은 본격적으로 제주 어장 침탈에 나서게 되었다. 1891년 8월 전라감사 閔正植과 전 제주 목사 趙均夏가 장계를 올려 정부의 대책을 호소하였으나,³³⁾ 정부의 협상 범위를 이미 벗어난 뒤였다.

일본 어민은 漁稅를 납부하지 않음은 물론, 어로하는 도민들의 어구와 어획물을 탈취하고 연안에 상륙하여 주민들을 살상하는 등 침탈 행위가 이어졌다. 1891년 5월 15일 제주목 건입포에서 일본 어민들이 허가 없이 어로행위를 하다가 이에 반발한 주민 16명에게 총과 칼로 상해를 입혔는데, 그 중에서 任順伯이 즉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어서 1891년 6월 13일 朝天鎭에서는 일본 어민들이 조총과 칼로 무장하여 朝天里·北浦里·威德里·東福里 등 마을의 민가에 난입하여 부녀들을 겁간하고, 곡식과 가축들을 약탈하였다. 金纓里(김녕리)에서도 李達兼이 칼에 맞아 사경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하였다.³⁴⁾

32) 『濟州三邑民人等狀』(1890년 6월 17일), 『所志謄錄』(奎 18015).

33) “일본 배가 아무런 증명서도 없이 갑자기 와서 정박하고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는 것을 보기만 하면 약탈하고 묶어 놓고 때려 물에 처넣었습니다. 백성들이 배에 올라 저지하자 저들은 칼과 총으로 많은 인명을 해쳤고, 민가에 돌입하여 부녀자를 위협하고 양식과 옷과 닭과 돼지 등을 약탈하였습니다. 갖은 행패를 다 부려 온 섬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 형편이니, 일본 사람을 금지시킬 대책과 섬 백성들을 편안히 살게 해 줄 방도를 아울러 廟堂으로 하여금 稟處하게 해 주소서.”(『承政院日記』, 高宗 28년 8월 22일)

34) 『釜山港關草』 3冊, 壬辰(1892) 6월 초3일 關釜監 ; 『日案』, 1891년 8월 25일, 濟州出漁日人の 任順伯등 殺傷掠奪事件과 先後命案의 查辦 및 出漁禁止 要求.

특히 조천진 사건에 대해서, 일본 측은 조천 출신의 향리들이 개입했다고 지적하였다. 제주도 鄕權을 장악한 吏房 金膺海, 巨老村의 金履赫, 조천진의 愼裁浩 金膺銓 등이 결속하여 매관매직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일본 어민의 어장 진출에 따라 자신들의 이권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여 일본 어민을 배척했다고 하였다.³⁵⁾ 또한 1891년 3월 巡審官 李璘의 파견 때에도 이들 향리들의 음모 때문에 쫓겨난 것으로 보았다.³⁶⁾

1892년 2월에는 小柳重吉(對馬島 출신)과 山口佳太郎(長崎縣 출신)이 이끄는 일본 어민 144명이 어선 18척을 타고 城山浦에 불법으로 상륙하여 어막을 짓고 생활하며 어로활동을 하다가 쫓겨난 일이 있었다.³⁷⁾ 얼마 뒤 일본 어민들은 총과 칼로 무장하고 마을에 난입하여 행패를 부리고, 그 와중에 주민 吳東杓가 일본 어민이 발사한 총에 맞아 즉사하였다.³⁸⁾ 그리고 1892년 4월 禾北浦에서도 일본 어민이 쏜 총에 맞아 金斗九 高童伊 등이 중상을 입었고,³⁹⁾ 頭毛里浦에서도 일본 어민들이 난입하여 겁간과 약탈을 자행하며 高達煥 高永生을 칼로 찔러 사경에 이르게 한 일이 있었다.⁴⁰⁾

이러한 일본 어민의 침탈과 만행에 대하여 제주도민들은 생존권 수

35) 『鎭西日報』, 1891년 9월 19일(제주도 살상사건 續報), 10월 21일 제주도 어업의 사실).

36) “목사의 이방에는 김응해, 신재호, 김응전, 김이혁이라는 4명이 있어 가장 큰 권세를 누리고 있다. 지난날 외아문 주사 李璘씨가 순심관으로서 왔을 적에 이씨가 일본 어부에 대한 대우를 너그러이 할 것이라고 말하니, 위 이방 김응해의 사주로 다른 세 명이 이씨를 구류하고 그를 가혹하게 책망, 구타한 후 약간의 뇌물을 이씨에게 주어서 살그머니 처리했다고 한다.”(『鎭西日報』, 1891년 10월 6일, 제주도 목민관의 內情).

37) 『鎭西日報』, 1892년 6월 15일(제주도에서의 일본 어민 추방의 전말).

38) 위의 『釜山港關草』; 『全羅道關草』, 1892년 6월 1일; 『日案』, 1892년 6월 26일, 日漁民의 濟州島 吳東杓等 殺傷事件과 前後案犯의 徹底拿懲 및 償命 要求.

39) 위와 같음.

40) 『全羅道關草』, 1892년 6월 10일; 『日案』, 1892년 7월 4일, 日漁民의 濟州 高達煥等 刺傷事件 및 前次照覆에 대한 反駁.

호를 위한 적극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1891년 3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巡審官 李璣이 내려오자, 도민들은 봉기하여 일본에 대한 제주어업 침탈 허용에 항거하였다.⁴¹⁾ 도민들은 순심관 이전에 머물고 있는 처소에 몰려와 관원들을 구타하고 순심관을 배에 태워 내쫓아버림으로써 강력한 저항을 하였다.⁴²⁾

한편으로 이러한 일본 어민의 어장 침투에 대해 제주 어민들은 중앙정부에 기대지 않고 직접 대응하여 나갔다. 연안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巡捕(巡檢)를 두어 일본 어민의 침탈을 막고자 하였다. 이후 지방관이 순포의 배치를 인정하고 관련 경비를 지원하였다. 순포는 50명 이내로 선발하여 포구의 주요 지점에 배치하였는데, 일본 어선이 정박한 곳에는 聯隊로 하여금 순찰하게 하고 일본인이 육지에 내리면 그 경위를 문계끔 하였다.⁴³⁾ 1892년 11월 일본 어민의 어채와 약탈행위를 저지하기 위해서 연해 73개 마을에 순포를 설치하였다.⁴⁴⁾

또한 제주 어민들은 어업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폭력적 대응도 마지 않았다. 1896년 4월 일본 어민이 전복과 해삼을 채취하고 인근 연안에 가공공장을 세우자 도민들은 이들을 습격, 재물을 탈취하고 살상하기도 하였다.⁴⁵⁾ 1899년 8월에는 제주읍내 山底浦에서 일본인이 인가에 들어가 여자들이 網巾 짜는 것을 보다가, 읍내 주민들이 무리를 지어 돌을 던지며 그를 쫓아내는 일이 발생하였다.⁴⁶⁾

또 한편으로 제주 어민들은 1900년을 전후하여 자체적으로 어구·어선 등의 확보를 통해 어업 활동에 적극 나섰다. 특히 멸치어업은 전복을 제외하면 제주 연안어업 대상 어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⁴⁷⁾ 어촌마을 자체적으로 협회를 조직하여 계원들이 공

41) 韓祐勳, 「開港後 日本漁民의 浸透(1860~1894)」, 28~29쪽; 姜萬生, 「韓末 日本의 濟州어업 침탈과 島民의 대응」, 124쪽.

42) 『承政院日記』, 高宗 28년(1891) 5월 2일.

43) 『日案』, 1892년 7월 4일, 日漁民의 濟州 高達煥等 刺傷事件 및 前次照覆에 대한 反駁, <부록> 濟州沿岸巡捕新設案.

44) 『全羅道關草』, 1892년 11월 29일

45) 姜萬生, 「韓末 日本의 濟州어업 침탈과 島民의 대응」, 124쪽.

46) 『續陰晴史』, 光武 3년 8월 29일.

동으로 그물이나 어선을 구입하였다. 이러한 그물계 조직을 網代라 불렀는데, 멸치망대는 제주 어민들의 독점적인 멸치어장 관리 조직으로서 10~20명으로 구성된 공동투자 조직이었다.⁴⁸⁾ 20세기 초 제주도내에 멸치망대가 조직된 대표적인 浦村은 아래 표와 같다.

郡名	浦村名
濟州郡	自浦 貴日浦 嚴壯浦 高內浦 郭支浦 錦城浦 貴德浦 翰林浦 俠才浦 孟令浦 月令浦 終達浦 別防浦 平岱浦 杏源浦 武州浦 金寧浦 咸德浦 甘水浦 別刀浦
旌義郡	表善浦 方頭浦 城山浦
大靜郡	摹瑟浦 沙溪浦

제주도 어장 전역에서 멸치 어획은 300만 근(韓斤)을 밑돌지 않을 정도였다. 제주군의 자포·곽지포·금성포·귀덕포·협재포·배령포·별방포·무주포·김녕포·함덕포, 대정군의 모슬포, 정의군의 표선포 등은 1어기 동안에 20만 근을 어획하였다. 1904년에 배령포에서는 하루 밤에 5만 근을 어획하기도 하였다. 잡아들인 멸치는 모두 땅에서 말린 다음 일본 중매인의 손을 거쳐 일본 내 尾道·下關·筑前·筑後·鹿兒島 지방으로 수송되었다.

멸치어업에 揮網·方陳網 등 많은 그물을 활용한 것은 1900년경부터였다. 20세기 초 기록에는 “방진망을 가지고 멸치 떼를 호위하여 점점 그물을 좁혀가다가 대바구니를 사용하여 그 속으로부터 움켜 올린 것을 때배(筏船) 위에 내려 일정장소로 운반한다.”고 당시 멸치 어업 방식을 기술하였다.⁴⁹⁾ 계원들은 자기 마을의 멸치어장을 공동으로

47) 1908년 통계에 의하면, 제주도에서 생산된 상품은 473,010엔인데, 이 중 수산물은 317,010엔으로서 전체의 75%를 차지하였다. 수산물 생산액은 멸치 73,040엔, 우뚝가사리 12,000엔, 미역 5,000엔, 해삼 58,800엔, 전복 160,000엔, 도미 10,500엔, 감태 35,000엔이었다 朝鮮總督府 農商工部, 『韓國水産誌』 3, 1909, 396~399쪽. 개항 이후 제주도 멸치어장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보기 바란다. 김수희, 「개항기 제주 멸치어장의 형성과 어업구조의 변화과정」 『제주역사문화』 13·14 (2005), 123~134쪽.

48) 青柳綱太郎, 『朝鮮の寶庫 濟州島案内』 47~49쪽

관리하여 공동으로 수확하고 분배함으로써 일본 어민의 침투를 근본적으로 막아나갔다. 일본 어민들도 멸치어장에는 합부로 접근하지 못했다. 1904년 여름 성산포를 근거지로 하는 長崎縣의 어민이 멸치어장을 갖고 와서 멸치잡이에 나섰다. 지역어민들과 싸움이 빚어져 제주목사가 일본인 주재경관과 담판하여 해결할 정도였다.⁵⁰⁾ 제주지역민들이 계 조직을 이용하여 어구 어선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자체 역량을 결집시켜 공동의 이익을 창출시켰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IV. 일본 어업인의 제주도 본격 진출

1883년 7월 25일 「조일통상장정」이 체결된 뒤 일본 어민의 제주 통어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일본 어민의 제주 어장 침탈에 대해 제주도민들은 저항했고, 일본의 제주 통어 금지를 위한 정부와 지방관의 노력이 이어졌으나, 결국 조선 정부는 일본의 강압에 눌려 근본적인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 이후 일본어업의 제주 진출은 기정사실이 되어버렸다.

앞에서 보았듯이, 1880년대에 吉村與三郎가 잠수기 어선을 이끌고 제주도에 와서 대정군 가과도에 근거를 잡았다. 이어서 九州五島에 사는 三宅道次郎가 역시 잠수기선을 끌고 와서 전북 해삼을 잡을 목적으로 제주군 행원리에 창고를 설치하였다.⁵¹⁾ 1890년대 이후 일본 어민들은 어획물 가공공장을 만들기 위해 포구의 先達이나 浦口主人 등을 이용하여 임시거주지를 확보하였다. 일본 어민들은 오조포·성산포·비양도·가과도·서귀포를 비롯한 상당수 연해마을에 선단을 앞세워 불법으로 어막을 짓거나 가옥을 빌려 거주하면서 어로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을 가공하였다.

1890년대 일본 잠수기업자들은 수산회사를 조직하여, 10~20척의 선단을 이끌고 본격적으로 제주연해에서 조업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

49) 大野秋月, 『南鮮宝窟 濟州鳴』 1911, 83 쪽

50) 青柳綱太郎, 『朝鮮の寶庫 濟州島案内』 48 쪽.

51) 大野秋月, 『南鮮宝窟 濟州鳴』 81 쪽

들 수산회사에 세제상 혜택 및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일본 어민의 제주어업을 장려하였다. 1890년대 말 일본어업의 침탈상은 거의 무법에 가까웠다. 『황성신문』에는 “3천여 척의 일본어선 가운데 漁稅를 지불하고 準單을 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꼬집을 정도였다.⁵²⁾ 일본 어민들은 일부 지역을 거점으로 거의 연중으로 제주연해에서 조업하였다. 이제 제주도 연해 마을마다 일본 어민의 근거지가 생겨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였다.

1890년대 후반 이후 일본의 제주 어장 침투는 단순 통어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거점지역 확보 단계로 진전되고 있었다. 1890년대 중반 이후로는 두드러진 제주어장에서의 어업 분쟁은 사라졌다. 일본 어선들은 별다른 충돌 없이 제주도 연안의 여러 포구에 정박하였으며, 제주도에서의 어업을 일본 어민들이 독점하여갔다.

제주도에는 1896~1897년경부터 일본인의 입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일본의 침탈이 본격화되었다. 1898년 당시 제주 어장에 출어하는 잠수기선은 100여 척이었고,⁵³⁾ 1899년 당시 전체 출어 어선 수는 3~4백 척이나 되었다.⁵⁴⁾ 1900년대 초에 이르자 일본인 출어자가 날로 늘어 漁期에는 일본어선이 200여 척이나 출어하였으며, 일본 어민들은 제주도 연안 지역에 어막을 갖추었다. 제주도는 일본출어자의 유력한 근거지인 만큼 山口·大分·長崎·熊本 등으로부터 온 어민들이 20여 개소의 어막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들은 일정 기간의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여기가 끝나면 곧바로 돌아가는 이른바 ‘여행적 어업’을 행하였다. 일본 어민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제주도민들은 어막을 파괴해 버리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일본 어민들은 매년 여기 동안에 어막을 다시 만들 수밖에 없었다.⁵⁵⁾

이러한 ‘여행적 어업’은 漁期에 따라 왕래하는 계절적 어업의 형태를 말한다. 상어주낙은 6월부터 12월까지, 돛주낙은 2월부터 4월까지, 정치망은 10월부터 12월까지, 一本釣는 6월부터 10월까지, 나잠어업

52) 『皇城新聞』, 光武 3년 12월 15일 .

53) 『大阪朝日新聞』, 1898년 4월 7일(제주도의 소요).

54) 『皇城新聞』, 光武 3년 8월 29일.

55) 青柳綱太郎, 『朝鮮の寶庫 濟州島案内』 85 쪽.

은 5월부터 10월까지 출어하였다. 한편 잠수기는 연중 내내 제주 어장을 드나들었다.⁵⁶⁾

1901년에는 모두 445명의 일본인이 제주도 연안이나 주변 도서에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였으며, 연안에 20여개의 일본 어민의 어막이 있었다. 당시 비양도는 제주성내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던 일본인의 어업 거점지역으로서, 이 섬에는 창고 5棟, 잠수기선 6艘, 鯛繩船 13척, 親船 4척 등과 어민과 倉庫主를 합하여 150명 정도가 체류하였다.⁵⁷⁾ 비양도는 일본 어선의 주요한 근거지로서, 통어자는 大分縣을 비롯하여 長崎縣·山口縣 출신들이 주로 출어하였다.⁵⁸⁾

또 梧桐浦에 창고 1동, 器機船 2척과 어민 23명이 있고, 성산포에는 창고 7~8동, 기계선 9척, 어민이 약 80명이며, 牛島에는 상인 1명과 白濱에 창고 3동, 기계선 7척, 어민이 약 80명이며, 松波에 창고 3동, 기계선 4척, 어민 40명, 또 가파도에 창고 1동, 기계선 6척, 어민 약 70명이 있었다.⁵⁹⁾

일본 어민이 출어할 때 동업하는 선단은 1단이 20~30명으로 구성되는데, 때로는 50~60명이나 되는 경우도 있다. 1901년부터 1903년까지 제주 어장에 출어하여 체재했던 일본 어민의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在濟州日本人 漁業 統計表

연도	어막 수	잠수기	상어주낙	돔주낙	一本釣	나잠업자	승무원인원
1900	11	18	25	30			457
1901	16	23	32	35	15	10	846
1902	18	23	40	45	20	12	1,007
1903	22	30	50	50	20	12	1,160

(잠수기 1척은 보통 9인승, 상어주낙은 7인, 돔주낙은 4인, 일본조는 4인, 나잠업자는 20인승임)

56) 青柳綱太郎, 『朝鮮の寶庫 濟州島案内』 42~43 쪽

57)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6권.

58) 青柳綱太郎, 『朝鮮の寶庫 濟州島案内』 45 쪽.

59)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6권.

제주도내 일본 어민 현황(1904)

지역명	어막 수	어민 수
비양도	4채	80
가파도	2채	40
당포	1채	20
서귀포	3채	60
산지포	1채	20
백빈항	3채	60
망두포	1채	20
성산포	5채	100
행원포	2채	40
별도포	2채	40
곽지포	1채	20
합덕포	1채	20
계	26채	520명

이 표에서 보듯이, 20세기 초 일본의 출어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다. 1904년의 경우에도 출어선이 더욱 늘었지만, 러일전쟁의 여파로 예년 수준에 머무르게 되었다. 1903년 당시 제주 어장에서의 일본 어민의 어획고는 전복 6만7,500근, 돔 6만근, 상어 7만5,000근, 해삼 8만6,400근 등으로서, 수익금은 전복 5만엔, 상어 9만엔, 돔 1만8,000엔, 해삼 5만1,000엔 등이었다.⁶⁰⁾

19세기 말 제주 어장에 진출한 일본 어민들은 1889년 11월 체결된 「조일통어규칙」에 규정된 漁稅도 납부하지 않은 채 어채 이익을 독점하였고,⁶¹⁾ 거주 지역에서 버젓이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1898년 ‘방성칠란’ 때 성산포에 거주하던 일본 어민의 대표 龜井多三郎은 김윤식에게 피난을 위한 선박을 빌려주려고 하였다.⁶²⁾ 당시 민란 지도부의 지시에 의해서 別防村의 주민들이 이를 저지하려 하자 龜井多三郎이 주민들을 질책하고 있는데, 지역 내에서 일본 어민이 차지하

60) 青柳綱太郎, 『朝鮮の寶庫 濟州島案内』 50쪽.

61) 『皇城新聞』, 光武 4년 12월 12일.

62) 『續陰晴史』, 光武 2년 3월 10일.

는 위상을 짐작하게 한다.

1894년 4월 廣島縣 출신 荒川留重郎가 원양어업을 목적으로 어선을 이끌고 제주도 연안을 정찰하다가 제주군 비양도에 상륙하여 근거지로 삼았다. 그는 제주도를 비료제조업의 적지로 여겨서 1901년 여름에 비료제조장을 광덕리와 함덕리에 설치하였고, 근거지를 비양도 맞은편의 협재리로 옮겼다.⁶³⁾

그는 제주도에서 일어난 주요한 일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1901년 ‘이재수란 때 소식을 목포항에 있는 일본영사에게 급히 보고하여 일본 군함 濟遠艦의 파견을 요청하기도 하였다.⁶⁴⁾ 일본 측은 6월 3일 濟遠艦을 목포로부터 파견하였는데, 목포의 일본공사관 직원 2명이 제주에 와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제주목사를 만나기도 하였다. 특히 이재수가 이끄는 민군 진영에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하였다. 민군 측이 제주에서 어업 활동을 하던 일본 어민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고, 후일의 거취를 함께 의논하였다는 것은 김윤식의 『續陰晴史』,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천주교회 측 자료 등을 통하여 뚜렷이 확인된다. 1901년 5월 29일에는 荒川留重郎를 비롯한 일본인 3명이 민군의 이재수를 찾았다.⁶⁵⁾ 1901년 6월 2일 李在守가 荒川留重郎과 大分縣 출신으로서 상업을 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재류 중인 松川實⁶⁶⁾ 등에게 상호 협력하자는 서면을 보냈다.⁶⁷⁾ 천주교회

63) 大野秋月, 『南鮮寶窟 濟州鳴』 89~90 쪽 『韓國水産誌』에는 “1892년 廣島縣人 荒川某가 도미와 오징어 어업을 목적으로 어선 40척, 모선 5척을 이끌고 비양도에 와 매년 이곳을 근거로 어업을 하였는데, 1902년경부터 협재·광지를, 그 다음해에는 함덕까지를 근거지로 하여 멸치 중매를 겸해 1906년에는 어업을 폐하고 광지에 본점, 협재와 함덕에 지점을 마련하여 오로지 멸치 중매 및 榨粕 등을 제조하게 되었다.”고 하여, 제주도에 들어온 시기를 1892년으로 보았다(農商工部水産局, 『韓國水産誌』(1908) 414 쪽).

64)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6권.

65) 『續陰晴史』, 光武 5년 5월 29·30일 .

66) 松川實은 제주도에서 감태를 이용한 옥도 제조 사업을 벌였다. 그는 청일전쟁 전 제주도에서 잠시 신문의 통신원으로서 도세를 조사·시찰한 적이 있었다(靑柳綱太郎, 『朝鮮の寶庫 濟州島案内』 77쪽).

측 자료에는 이재수가 이끄는 西陣의 장두들이 민란 막바지인 6월 10일까지 비양도에 있는 일본인 荒川留重郎의 집에 은신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通文이 확인된다.⁶⁸⁾

1905년 당시 제주에 진출한 일본인의 수는 이미 2,300명 정도에 이르렀다.⁶⁹⁾ 이들 중 절반은 어업에, 또 절반은 육상의 상업(중개업)에 종사하였다. 제주도에 진출한 일본인이 늘어나자 일본 정부에서는 재류 일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관 출장소를 두었고, 우편수취소를 두어 통신의 편리를 도모하기도 하였다.⁷⁰⁾

당시 西歸浦 지역에는 일본 어민이 다수 진출하여 연안의 어업 활동을 독점하여 버렸다. 이에 따라 연안이나 도서에 일본 어민의 막사가 상당수 생겨났다. 1905년 당시 서귀포에는 어막 3채에 어민 60명이 거주하면서 어업 활동을 하였다. 이들 일본 어민들은 새로운 사회 세력을 형성하여 어업 침탈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에까지 공공연히 개입하여 기존 세력과 충돌을 빚기도 하였다. 서귀포 지역에서 발생한 그 대표적인 사건이 1902년 ‘梁始中 사건’이다. 이는 한논마을에 사는 천주교인 朴在順이 예촌에 사는 별감 양시중을 때린 데 대하여 일본인과 결탁한 宋時伯과 일본인들이 무기를 들고 한논마을에 돌입하여 난리를 일으킨 사건이었다. 1902년 5월에 서귀동 송시백의 집에 머무르던 松永哲之浦 등 일본 어민 11명이 총포 2자루와 군도 3개, 창 4개, 깃발 2개를 가지고 고동 1개를 불며, 한논마을에 와서 집집마다 들어가 난리를 일으키고, 박재순을 결박하고 구타하였던 것이다.⁷¹⁾

한논마을은 천주교회가 자리 잡았던 곳으로서, ‘이재수란’을 경과하면서 많은 교민들이 피살되어 교세가 급격하게 약화되었지만, 그때까

67) 『駐韓日本公使館記録』 16권.

68) “민중이 해산한 후에 장두가 몇 패로 나뉘어 비양도 일본인(荒川留重郎)의 집에 은신했다는 것을 멀리서 들은 것으로 하지 말기를 바란다.”(『뒤텔문서』-제주-139, 1901년 6월 1일자 通文)

69) 『新戶新聞』, 1905년 5월 4일(제주도에 가라).

70) 『大阪毎日新聞』, 1904년 1월 11일(제주도에서의 새 일본).

71) 『濟州牧旌義郡守報告書抄』, 壬寅(1902) 5월 27일.

지도 교민들 상당수가 모여 거주하던 교민촌이었다. 한편 한눈마을과 인접한 서귀동은 포구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일본상선이 수없이 이곳을 왕래하였고, 이곳에 일본인 수십 명이 어막을 쳐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같은 지역에서 프랑스 신부가 포교를 하던 천주교회와 경제권을 장악해가던 일본 어민들 사이의 갈등은 언제라도 표출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이재수란’ 발생 이전부터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졌던 토착세력과 일본 어민들이 민란 이후 교회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V. 맺음말

지금까지 개항 이후 일본의 제주도 인식과 일본 어민의 제주 어장 침탈 상황, 제주도민의 대응 등에 대해 검토하여 보았다. 또한 새로이 발굴한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제주 어장에 진출한 일본 어민들의 실상, 일본 어민의 제주도 본격 진출 상황, 제주 어민과의 분쟁 내용 등에 대해서도 정리하여 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역사적 의미를 밝혀봄으로써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은 1885년 거문도 점령사건 전후 시기로부터 제주도를 중요한 전략적 지역으로 중요시하고 있었다. 1901년 ‘이재수란’ 때에는 자국의 어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목포 영사관에서 정보원들을 파견하여 제주 현지의 사정을 파악하기도 하였다. 일본이 한반도에서의 통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독 제주 어장을 중시했던 배경에는 이러한 일본의 제주에 대한 침략적 의도가 있었다. 청일전쟁 이후 일본 어민의 제주 어장 진출과 왕래가 활발해졌고, 러일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제주도에 대한 식민사업이 논의되었던 것도 이러한 일본의 제주도 인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일본 어민의 제주 어장 침탈은 처음에는 古屋利涉 선단에서 보듯이,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입장으로 일관했다. 때문에 1887년부터 1892년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제주도민의 저항에 부딪혔고, 제주 어민

의 살상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그러나 1890년대 제주 어장에서 조업한 吉村與三郎 선단은 제주지역의 지방관과 결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주 어민과의 별다른 충돌 없이 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1890년대 후반 이후로는 일본 어민의 제주도 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⁷²⁾ ‘방성칠란’ 때 龜井多三朗, ‘이재수란’ 때 荒川留重郎와 松川實, ‘양시중 사건’ 때 松永哲之浦 등이 가졌던 제주도 사회에서의 영향력은 이미 19세기 말 20세기 초 일본 어업자본의 제주도 진출이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읽을 수 있다.

셋째, 이만송·양종신 등의 살상·약탈사건은 우발적이고 단순한 분쟁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古屋利涉 선단을 앞세운 일본 측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도발로서 통어 조건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그리고 대부분의 살상 사건은 어민들 사이의 사적인 대립이거나, 한 마을 단위에서 발생한 단순 우발 사건이 아니다. 이만송 사건은 대정현 연안의 무릉리·영락리·일과리·모슬리·카파도 등 여러 마을에 걸친 침탈·살상이었고, 조천진 사건은 조천리·북포리·함덕리·동북리·김녕리의 어민들과 연관된 사건이었다. 특히 조천진 사건에서는 제주도 향권을 장악한 조천 출신의 김응해·김응진·신재호 등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역 이권에 개입한 외부세력과의 갈등 대립으로도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민의 일본 어민에 대한 대응 태도가 이율배반성을 띠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1880년대 일본 어민의 침탈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에는 강력하게 맞대응하고 저항하였지만, 1890년대 후반 이후로는 일본인과 결탁하여 이권을 확보하려는 제주민의 태도 또한 확인된다. 이 점은 1901년 ‘이재수란’ 직전에 외부로부터 들어온 봉세관과 천주교회의 힘에 흡인되거나 저항해나갔던 제

72) 제주도에 거문도, 경남 전남 연해안 지역에서와 같이 이주어촌이 건설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1907년에 제주도 동부의 성산포에 이주어촌이 건설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김수희, 「어업근거지건설계획과 일본인 집단이민」 『한일관계사연구』 22 (2005), 149쪽.

주도민의 이중적 태도와도 결부시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을 작성하면서 일본의 어장 침탈과 분쟁 사건의 실상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기존연구의 수준을 필자 또한 넘어서지 못하였음을 절감하였다. 1890년대 중반 이후 일본 어업의 제주도 침투에 대한 저항이 수그러들었던 점, 제주도에 진출한 일본인들과 제주민과의 교류와 갈등 등 상호관계,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제주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 많은 의문점을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한 듯하다. 이들 문제점은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K C I

Advance in Chejudo of Japanese fishery since
Port opening(1876~1910)

Park, Chan-Sik || Research Professor of Tamla Culture Research
Institute,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4843@hanmail.net

This paper focused in Chejudo's cognition of Japan, pillage of Chejudo fishing ground and Chejudo people's correspondence since Port opening. I investigated about Japanese fishermen's moving to Chejudo with new historical material.

Through this research, I could confirm following truths.

First, Japan thought of Chejudo as important strategic area from the Port Hamilton occupation event in 1885. Japan dispatched informers in Chejudo to protect Japanese fishermen at the time of Chejudo popular uprising in 1901. It was because Japan had aggressive intention about Chejudo fishing ground.

Second, Japanese fishermen's pillage about Chejudo fishing ground was violent and coercionary first time. Therefore, Japanese fishermen were bumped on Chejudo fishermen's strong

resistance from 1887 to 1892, and killing and injuring about them happened consecutively. But, in the 1890s, Japanese fishermen moved in Chejudo and settled regularly from latter half.

Third, killing and injuring event of Leemansong(李晩松) and Yangjongsin(梁宗信) was not incidental and simple dispute. This was intentional stirring up of Japan. And the most killing and injuring events were pillages extended in the several villages. Also, it was confrontation with aboriginality influence and external influence that enclosed regional social rights and privileges.

Finally, Chejudo people's correspondence about Japanese fishermen was antinomy. When Japanese fishermen's pillage was begun in the 1880s, Chejudo people stood strongly. But, in the 1890s, Chejudo people tried to secure rights and privileges with Japan fishermen from latter half.

Key words : Port opening(개항), Chejudo's fishing ground(제주도 어장), pillage of fishing ground(어장 침탈), dispute between fishermen(어민 분쟁), fishermen's move(어민 이주)